햣코히쇼: 다이묘의 공예 표본집

햣코히쇼는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의 제 5 대 번주인 마에다 쓰나노리(1643~1724)의 제안으로 17 세기 일본 각지의 대표적인 소품이나 견본, 도판 등을 모은 공예품의 집대성입니다. 1600 년대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2,000 점 이상의 작품이 11 개의 상자와 2 개의 부속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수집가

마에다 쓰나노리는 꼼꼼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책과 문헌, 공예품 등의 수집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쓰나노리도 중국의 유학자이자 주자학을 완성한 주희(1130~1200)가 주장한 사상인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知)를 이룬다는 것은 사물에 이르는 데 있다'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쓰나노리는 장식공예(인간의 창의성에 유래한 '지'를 구현한 것)를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물질세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사고와 양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쓰나노리가 특출났던 것은 이 사상을 공예품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의해 '햣코히쇼'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쓰나노리는 공예품을 수집하면서 장인들에게 견본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에다 가문의 가가와 에도(현재의 도쿄) 저택에서도 공예품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다른 번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판매를 거절당하면 복제품을 제작하거나 그 물품을 정밀하게 그림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수집품의 85~90%는 쓰나노리가 직접 입수한 것이며, 그의 사후에도 자손들에 의해 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제 11 호 상자는 일시적인 '분류상자'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용물이 정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햣코히쇼'는 목록 작성의 완성이나 수집 목표 달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집품 내역

수집품에는 마키에(옻으로 문양을 그린 후 마르기 전에 금 등의 금속가루를 뿌려 부착시키는 기법), 금속공예, 목공예, 화지(일본 전통 종이), 피혁, 직물 견본, 의복, 가문 문양 등이 있습니다.

제 1 호 상자에 보관된 품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마키에 견본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초기 마키에 양식 중 하나로 나시지 도료를 사용한 격자입니다. 나시지란 옻칠 바탕에 입자의 크기가 다른 고운 금가루 '나시지 가루'를 뿌려 배껍질 같은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 견본들은 칠기와 색조의 변천과정 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및 수납방식은 장인들이 본보기로 삼기

쉬울 뿐만 아니라, 특정한 마키에 디자인이나 양식을 참조할 때도 유용했을 것입니다.

제 2 호 상자에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갑옷 위에 걸치는 진바오리를 비롯해 다채로운 색상의 무구 도판이 다수 보관되어 있습니다. 쓰나노리는 실제 진바오리를 수집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진바오리가 무사들에게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입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쓰나노리는 진바오리를 정확히 종이에 그리게 한 후, 그 도안을 햣코히쇼에 넣었습니다.

견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보관된 상자도 많습니다. 제 3 호와 제 4 호 상자에는 금속장식품과 금속공예품이, 제 5 호와 제 6 호 상자에는 장식용 못가리개가, 제 7 호 상자에는 정교한 디자인의 손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 상자에는 장식용 의보주(층계, 다리, 난간 따위의 기둥 윗부분에 쓰이는 장식물), 나무와 가죽류 견본, 손잡이와 못가리개의 모사도, 일상 도구나 장식품의 도안 등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직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공예품으로는 제 6 호 상자에 보관된 칠보 못가리개가 있습니다. 새장과 곤충장, 꽃바구니를 디자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못가리개는 마에다 가문의 에도 저택에 있던 실내장식품으로, '햣코히쇼'에 수납되어 있던 것입니다.